

# 근대 도시 경관을 활용한 조경 설계에 대한 연구 방향

배정한\* · 안진희\*\* · 손은신\*\* · 신명진\*\*\*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 I. 머리말

최근 공장 이전 부지를 비롯한 근대 산업 시설, 노후화된 인프라스트럭처와 구조물, 쓰레기 매립지 등의 부지가 조경 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지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 브라운필드(brownfield), 드로스케이프(drosscape), 유허 부지 등으로 불리는데, 국내에서는 서울역 고가, 용산공원, 경의선 철도,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대 도시 산업 경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조경의 대상지로서 잠재력을 갖는 근대 산업 도시 경관의 다양한 맥락, 가치, 효과를 해석하고,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 근대 산업 도시 경관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후속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II. 근대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근대는 타자에 의해 점령당한 아픔의 역사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으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의 근대를 바라보는 시선(제점숙, 2015)"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근대를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재인식(제점숙, 2015)"하는 분위기 또한 확산되었다. 근대 유산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가치의 창출로 변화했다.

서구에서는 근대의 역사적 사건을 아픔의 역사와 산업시대의 흥망성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대표되는 근대는 이후 그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다루게 만들었지만, 한편에서는 근대에 대한 재인식과 활용을 고민했다. 구 사회주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Kinossian, 2012), 탈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흔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Young and Kacznarek, 2008), 이를 활용한 도시 정체성 구축 방향 설정(Light, 2001) 등의 연구는 과거의 경관을 통해 미래의 교훈을 제공하는 근대 경관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촉구한다. 한편, 어두운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Tolle, 2010)와, 이를 특별한 기억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Light and Young, 2011)

의 양립은 근대 도시 경관을 다루는 다양한 견해를 보여준다.

근대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의 고도화와 탈산업화다. 조경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공장 이전 시설을 "산업 잔여물(industrial remnants)"이자 "기억의 장치(mnemonic devices)"라 묘사한다(Meyer, 2008). 도시의 잔여물로서 근대 경관은 집단의 기억을 두드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탈산업화 경관은 근대의 표상이며(Kolejka, 2010), 지역성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자(Wattis, 2013), 역사와 생태를 잇는 가교이며(Rich *et al.* 2015), 공통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노스텔지어 장치로서(Kohn, 2010) 다양한 활용 방식과 효과를 제시한다.

## III. 근대 도시 경관의 활용

근대 도시 경관은 어떻게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는가? 문화는 경제와의 상호작용, 이데올로기적 설득, 특정 행동 양식의 장려와 같이 문화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변화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대 사회를 특징짓는 유산의 범주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군사·산업 등"으로 확장시켰다(박용철, 2005). "역사 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이를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강동진, 2013). 또한 "관객 중심의 시장 논리가 적용된 디즈니화(disneyfication)" 현상은 상업적·경제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게 한다(Chhabra, 2008).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 도시 경관을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의 방향은 특정 근대 경관에 대한 보존 및 활용 촉구(이병수, 2007),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공간 활성화(유희정 외, 2013; 이광국·양위주, 2014) 및 경제적 효과(최종현·김유미, 2011)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검토해 볼 때, 대상물 중심적인 시각과 외적 특질의 보존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하는 보존 논리는 여전히 근대 도시 경관의 활용 방식을 결정짓는 다수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변환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등장하고 있다. "경관을 도시 만들기의 중요한 도구로 파악하고 탈중심화를 겪는 후기 산업적 도시 형태가 발생함에 따라 잠재적 공유지로서 남겨진 도시의 빈 공간에 주목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Shane, 2006)"은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의 일부임. No.2016R1D1A1B03933802

표 1. 근대 산업 도시 경관을 활용한 설계의 대표 사례

설계 사례	위치와 설계자	경관 유형	설계 사례	위치와 설계자	경관 유형
Duisburg-Nord Landscape Park	Duisburg, Germany Peter Latz(1994)	(기존)공장 (현재)공원	Promenade Plantee	Paris, France J. Vergely(2000)	(기존)고가철로 (현재)공원, 산책로
선유도공원	서울, 대한민국 조경설계 서안(2002)	(기존)정수장 (현재)공원	High Line	New York, USA JCFO(2009)	(기존)고가도로 (현재)공원
Tate Modern Museum	London, England Herzog & de Meuron(2000)	(기존)발전소 (현재)미술관	Fresh Kills Park	New York, USA JCFO(2006)	(기존)쓰레기매립지 (현재)공원
Orsay Museum	Paris, France Gae Aulenti(1986)	(기존)기차역 (현재)미술관	하늘공원	서울, 대한민국 CA조경(2002)	(기존)쓰레기매립지 (현재)공원
Sudgelände Nature Park	Berlin, Germany (2000)	(기존)철로 (현재)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서울, 대한민국 Zaha Hadid + 삼우건축, 2014	(기존)운동장 (현재)복합시설·공원

도시 구조 형성에 주목했다. 국내에서도 선유도공원이나 서울역 고가처럼 산업 및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한 대상지에 대해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나타났다(정기용, 2002; 최우영 외, 2013; 주신하 외, 2010; 임승빈 외, 2014; 배정환, 2015 등). 이처럼 근대 도시 경관을 기존 도시 구조와의 통합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근대 도시 경관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근대 도시 경관으로 활용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표 1 참조).

#### IV. 맺음말

이 연구는 도시 내의 근대 산업 경관이 앞으로도 계속 노후화하고 이전하며 남겨진다는 점과 연관된 여러 이슈에 주목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경관의 구조와 형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남겨진 경관을 활용한 공원은 기존의 공원과 다른 작동을 발생시키는가? 이를 알기 위해 공원에 도입된 프로그램과 경관 간의 관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설계의 구성 논리로써의 프로그램은 공원의 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원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된 경관의 설계적 활용 방식을 향후 발생할 경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근거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경관의 보존과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도 변화한다. 이러한 가치 판단 과정에는 경관의 역사적 의미, 구조의 노후화, 경제적 논리 등 다양한 가치들이 대립한다. 보존·철거·복원·해체를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다양한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대 도시 경관에 대한 가치 판단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동진(2013)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253-267.
- 박용철(2005) 서울 근대건축물의 현황과 관리. 서울학연구. 25: 1-25.
- 배정환(2015) 세상에서 가장 긴 화분: 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설계 비평. 환경논총 56: 28-34.
- 유희정, 김주연, 신혜원(2013) 근대산업유산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컨버

- 진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3: 85-96.
- 이광국, 양위주(2014)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산업유산의 특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1: 5-19.
- 이병수(2007) 동대문운동장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근대문화유산. 스포츠과학 101: 100-107.
- 임승빈, 권윤구, 정윤희, 허운선, 변재상, 최형석(2014) 장소기억의 재현을 주제로 조성된 서울숲,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형성 구조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5): 1-12.
- 정기용(2002) 선유도 공원: 잊혀진 땅의 귀환. 문화과학 31: 245-256.
- 주신하, 김영희(2010) 도시공원 이용자의 설계개념 인식정도: 서울숲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8(5): 53-63.
- 계점숙(2015) 근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역사인식 문제: '근대'라는 역사인식의 행방. 비교일본학회지 35: 57-89.
- 최우영, 김동찬(2013)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선유도공원의 현상학적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4): 83-92.
- 최종현, 김윤미(2011) 역사문화도시와 경제중심도시: 두 마리 토끼는 잡지 못한다. 서울학연구 43: 203-233.
- Chhabra, D.(2008) Positioning museums on an authenticity continuu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2): 427-447.
- Kinossian, N.(2012) Post-socialist transition and remaking the city: Political construction of heritage in tatarstan. Europe-Asia Studies 64(5): 879-901.
- Kohn, M.(2010) Toronto's distillery district: Consumption and nostalgia in a post-industrial landscape. Globalizations 7(3): 359-369.
- Kolejka, J.(2010) Post-industrial landscape-its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s contemporary challenges faced by geographic research. Geographia Technica 2: 67-78.
- Light, D.(2001) Facing the future: Tourism and identity-building in post-socialist Romania. Political Geography 20(8): 1053-1074.
- Light, D., and C. Young.(2011) Socialist statuary as post-socialist hybrids: Following the statues of Dr Petru Groza in Romania.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7(4): 493-501.
- Elizabeth, K. Meyer(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A manifesto in three part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6-23.
- Rich, K., M. Ridealgh, S. West, S. Cinderby, and M. Ashmore(2015) Exploring the links between post-industrial landscape history and ecology through participatory methods. PLoS One 10(8): 1-14.
- Shane, G.(2006)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Urbanism, ed. Charles Waldheim. 김영민 역(2008)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출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pp. 60-77.
- Tolle, A.(2010) Urban identity policies in Berlin: From critical reconstruction to reconstructing the Wall. Cities 27(5): 348-357.
- Wattis, L.(2013) Class, students and place: Encountering locality in a post-industrial landscape. Urban Studies 50(12): 2425-2440.
- Young, C. and S. Kaczmarek(2008) The socialist past and postsocialist urban ident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5(1): 53-70.